



###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복지 상담' 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남지원기관인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은 지난 달 10~3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현장상담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

생활지원사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어르신들과 소통을 이끌어 효과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별 10회차로 진행하며 22개 시군 46개 수행기관 3200명 생활지원사가 참여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생활지원사의 상담기술 습득으로 현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현대삼호중 김상수 팀장, 국무총리 표창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김상수 팀장이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사진)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사장은 1일 본사 조찬회장에서 열린 대외포상 전수식에서 노동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기계의장부 김상수 기계1팀장을 격려했다.

김상수 팀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안정 기여 △안전한 작업장 구현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김상수 팀장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의 성원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 '범죄도시3' 개봉 하루만에 100만 관객 돌파

영화 '범죄도시3(사진)'가 공개 첫 날 7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는 괴력을 발휘하며 개봉 하루만에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범죄도시3'는 지난 5월31일 74만534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의 관객들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평일·주말 모두 포함 하루 최대 관객수 기록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인 1269만명이 본 전작의 개봉일 관객수는 약 46만명이었고, 일일 최대 관객수는 공개 후 첫 번째 토요일에 기록한 103만명이었다.

'범죄도시3' 누적 관객수는 하루만에 122만3875명이 됐으며 앞서 석가탄신일 연휴 사흘 간 유료 시사회를 통해 약 46만명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공개돼 정식 개봉 1일차에 100만 관객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범죄도시3'는 개봉 첫 주말에 무난히 3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2만 751명·누적 393만명), 3위 '본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 (1만8087명·누적 162만명), 4위 '인어공주' (1만4412명·누적 48만명), 5위 '포켓 몬스터 DP: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 (1만3252명·첫 진입) 순이다.

이주영 기자



### 전남여성가족재단, 생애주기 프로그램 진행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장성에서 여성의 생애주기 이해와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의 주도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생애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와 가족돌봄 등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재직여성, 출산 후 경력단절 이후 구직에 나서는 여성들에게 경력개발과 경력유지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생애주기 프로그램은 △직장생활 중 성공적 경력개발 및 강점 탐색 △주도적 커리어 설계 △성공적인 직장 복귀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1일, 22일 장흥과 고흥 지역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직장인으로서 성공적인 경력개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날 장성 구직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경력 탐색과 커리어 로드맵 그리기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전남 22개 시군에 찾아가 구직·재직여성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혜란 원장은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여성의 경력개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 광주보훈병원, 환자안전주간 행사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광주보훈병원(병원장 이삼용)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2023년 환자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적정진료실(실장 박재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주제에 동참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 환자의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슬로건 하에 직원과 환자, 내원객 모두가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환자안전 참여 제도를 설명하는 부스 운영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 콘텐츠 공모전 △환자안전 리더십 워크라운드(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직원 간 환자안전에 대한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간부진 교육 △환자안전 실천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병원은 먼저 고객의 이해를 돕는 '참여 부스 프로그램'(낙상 예방·환자안전 퀴즈·심폐소생술·환자안전 다짐 포드존 참여하기)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QR코드로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치료과정의 환자 참여' 홍보 영상에 이삼용 병원장이 직접 출연해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서는 치료과정에 환자의 동참과 제안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 화순향토음식연구회, 김영란·김순례 명장·대가 선정

한식문화 발전에 힘써 온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소속 김영란(사진), 김순례 회원이 한식 명장과 대가로 선정됐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사)대한민국한식포럼이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한식 대가·명장 선정식'에서 김영란 회원이 한식의 전문성과 공헌도를 인정받아 전통 음식 분야 한식명장으로 선정됐다. 김순례 회원은 장류 분야 한식 대가로 뽑혔다.

김영란 명장은 지난 2019년 한식 대가로 선정된 이후 파프리카, 토마토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에 힘썼으며 요리 경연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김순례 대가는 밀양 박씨 14대 종부로 집장, 깻묵장 등 화순 장류 제조 기술 전수와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장류 분야 한식 대가로 선정됐다.

김영란 명장은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향토음식 연구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남부경찰, 사회적약자보호 킥홀더 홍보 추진

광주 남부경찰(서장 문병조)은 관내 카페에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번호가 인쇄된 킥홀더를 배부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사진)

1일 남부경찰은 자체제작한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번호 등이 인쇄된 킥홀더 1000개를 메가커피 봉선점에 비치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약자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은 메가커피 봉선점을 시작으로 추후 스트리트푸드존 내 업체 및 주변 카페까지 참여를 확대해 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강주비 기자



### 장흥경찰, 교도소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장흥경찰(서장 김산호)은 지난달 30일 장흥교도소를 방문,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

이날 교육은 음주교통사고 통계를 비롯해 음주운전예방수칙, 음주고급체험, 관련 처벌 등 핵심내용을 전달했다.

음주고급체험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산호 장흥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백운지구대, 금은방 일제 점검 및 범죄 예방 활동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대장 임동섭)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금은방을 방문해 강·절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사진)

백운지구대는 금은방 8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내외부 CCTV 작동상태, 비상벨 시스템 및 직통전화(무 다이얼) 등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업주를 상대로 사용법을 시범 교육하고 범죄발생 시 대처요령을 설명했다.

임동섭 대장은 "중요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방범시설을 점검 후 퇴근하고 매장에 의심스러운 방문객이 있을 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현금다액업소에 대한 강·절도, 날치기 등 강력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